

보도 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배포 일시	2023. 3. 2.(목) 07:00
담당 부서	종묘관리과 생명자원팀	책임자	과장 권용락 (043-850-3340)
		담당자	임업연구사 박동진 (043-850-3361)

## 자생 침엽수 비자나무를 복제하는데 성공! - 비자나무 무성증식을 위한 삽목법 개발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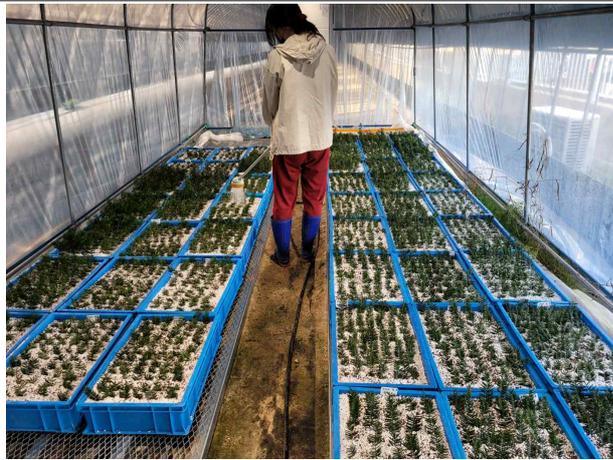
-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(센터장 김성만)와 까띠끌레용바이오(대표 정남철,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)는 국내에 자생하는 비자나무 자원의 우량유전자를 복제할 수 있는 삽목증식법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.
-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산림생명자원의 수집·보존·증식을 위해 까띠끌레용바이오를 2018년부터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으로 지정·운영하고 있다.
- 정남철 대표는 “이번에 개발된 삽목증식법은 30년 이상된 비자나무를 대상으로 발근율 90% 이상의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. 일반적으로 침엽수의 삽목 성공사례는 매우 드물게 보고되어 있고 노령목일수록 발근율이 낮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매우 획기적인 결과” 라고 말했다.
- 산림생명자원의 무성증식 방법은 어미나木の 유전형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써 우량한 형질을 보존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.
- 비자나무는 우리나라 온·난대 기후대에만 자생하는 늘푸른 바늘잎나무(상록침엽수)로 고가의 목재뿐만 아니라 열매는 견과로써 모두 이용 가치가 높은 우리나라 특산의 산림자원이다.
- 우량한 형질의 비자나무 복제를 통해 열매 수확량과 목재생산량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.
-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“우량한 비자나무 자원을 안정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.” 며 “센터는 앞으로도 산림생명자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외협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산림르네상스 구현에 이바지해 나가겠다.” 라고 밝혔다.

붙임

비자나무 삼목증식 관련 사진



비자나무림(전남 고흥 금탑사)



비자나무 삼목상



발근된 비자나무1



발근된 비자나무2